

# 낙태죄 폐지 논란 광주서도 ‘뜨거운 감자’

### 지역유림·종교계 반대...천주교광주대교구 100만 서명 돌입 여성단체·일부 시민단체 찬성...전남대 동아리선 폐지 운동

청와대가 낙태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광주 종교계와 유림,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본질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고 명쾌한 답을 내기 힘든 논쟁적 사안 이어서다.

7일 천주교광주대교구와 지역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광주지역내에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지난 3일부터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천주교광주대교구 역시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을 7일부터 시작했다.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와 사제, 수도자,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비율의 십자가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천주교광주대교구는 이날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유림 역시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광주향교 박준규 사무국장은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옛말이 있듯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몸을 지켜야하는데 몸을 상하면서까지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F ; ACT)

은 최근 전남대학교 인문대 벤치에 부스를 마련하고 재학생들에게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또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현수막 등을 걸고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형법인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김동영 회장은 “사회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여성이 낙태죄로 고통받고 있다. 원치 않는 출산으로 발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김희경 사무국장도 “중요한

것은 낙태죄의 폐지 여부가 아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 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 교구청 사제,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열렸다. 서명운동은 내년 1월28일까지 이어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법원 “광주 챔피언스필드 소음·빛 참을만하다”... 손배소 기각

### 공공 시설 피해 발생 인정 안돼

법원이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명

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면서 “야구장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신축 전(2005년 5월)인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이 사건의 아파트 주변에 있었고,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으므로 원고들은 입주하면서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빛 피해와 교통혼잡 피해에 대해서도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

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된 불쾌감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서 “교통혼잡 부분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향후에도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락실 투자·단속정보 제공 경찰관·업주 구속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에 투자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로 광산경찰서 소속 A경사와 오락실 업주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소재 B씨의 성인오락실 2곳에 총 5400만원을 투자해 수익금으로 1600만원을 챙긴다 이어 단속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1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담양서 노부부 숨진 채 발견

담양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께 담양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A(71)씨와 부인 B(60)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친구 C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

다. C씨는 “A씨와 이틀째 통화가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창문 너머로 부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주택에 단둘이 살던 이들 부부는 거실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별다른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 “너릿재 땅속 전자파 반응 두개골과 비슷” 5·18재단, 다음주 중 암매장 발굴 착수

### 전두환 회고록 1권 수정본 출판·배포금지 가져분 신청

5·18기념재단이 옛 너릿재터널 광주 방면 도로와 공원 등에서 다음주 중 5·18 암매장 유해발굴 굴착을 시작한다. 레이더 탐지기 조사결과 인체 두개골 형상으로 추정되는 전자파형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5·18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광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도 22호선 옛 너릿재터널 광주방면 도로와 인근 공원부지에서 다음주 중 5·18 암매장 발굴조사에 들어

“일반도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단은 이 물체가 동그란 돌이거나 산업폐기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발굴 지역은 너릿재터널에서 광주 방면으로 30여m 떨어진 가장자리쪽 1개 차선 도로(폭 4m·길이 4m)와 너릿재 공원 주차장 부지(폭 4m·길이 4m) 등이다. 발굴은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르면 만나질 정도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대낮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시신이 든 하얀 포대를 묻고 있었다”는 등 너릿재에서 암매장 작업을 봤다는 제보가 4건이 있다”며 “제보 지점과 GPR 탐지 지점이 동일할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 1권 수정본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져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으로, 2차에서는 ▲5·18 희생자 암매장 사실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1980년 5월 21일 집단발포 이전 시민군 무장 왜곡 등 40군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5·18때 美 언론인 사이 ‘미군 광주 폭격설’ 들었다”

### 5·18재단, 문서 공개

5·18 당시 미국 언론인 사이에서는 ‘미군이 전투기로 광주를 폭격한다’는 설이 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18기념재단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UCLA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자료로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연구원이 지난달 발굴했다.

해당 자료는 1980년 5월2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기자 브리핑 질의 응답을 수록하고 있다. 기자들은 국무부 대변인에게 “미군이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하냐”고 질문했다. 대변인은 “한국이 월

남이나, 국방부가 대답할 내용이다”고 답변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 기자들의 질문으로 미뤄 한국과 미국이 합동작전을 바탕으로 5·18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에는 미국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광주 체류 선교사들이 반대해 철회했다는 내용의 영문책자도 포함돼 있다.

또 신근부가 1984년 작성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의 원본도 발견됐다. 당시 총 5부만 발간된 것으로 2부는 청와대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알려져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김장하다 말다툼 끝 서로 배추 던지고 얼굴 할린 남매



○...김장을 함께 하던 40대 남매가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서로 배추를 던지고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5)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주택에서 누나인 B(47)씨 등 가족과 함께 김장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발로 B씨

의 몸을 밟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린 것으로, 누나 B씨도 이에 지지않고 남동생인 A씨의 얼굴에 똑같이 상처를 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겨울철 월동준비를 위해 가족끼리 김장을 하던 중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식 등을 놓고 시비가 붙어 남매간 생방폭행이 발생한 듯하다”며 혀를 꼰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